

대행 스님

그대로 충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라

여러분과 오늘, 새해에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굴림을 굴리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이 소국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인이 있나 없나를 알아 가지고 오라고 사신을 많이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니까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중 나가는 사람을 잘 뽑아서 내보내야 했었죠. 이건 국운이 달린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소신껏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시라면 시, 또는 군이면 군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봐서, 입이 무겁고 아주 청렴하고 이 마음공부에 정말이지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뽑았죠. 뽑아서 그 사람을 안내자로 내보냈는데 사신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새참으로 떡이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가지고 나간 상을 놓고서 떡을 차려 놨는데 그쪽 사신이 거기서부터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한번 시험해 보고 자기한테 하치않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나라 전체를 그냥 하치않게 보거든요.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죠. 거기서 안내자로 나간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러니깐 떡을 냉큼 다섯 개를 집어 먹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떡을 먹다 말고 손가락을 세 개를 척 들면서 아무 말 없이 무언(無言)의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 개를 먹었느냐?" 하는 줄 알고 "난 떡을 다섯 개를 먹었다." 하고 다섯 손가락을 탁 내밀었단 말입니다. 하하하…. 다섯 개를 탁 내미니까 그쪽에서는 '허, 삼강오륜을 그냥 통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선 가슴이 뜨끔해서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네모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하거든요. 아, 그러니깐 "너는 네모반듯한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또 "동그란 떡을 먹었다." 하고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그렸단 말입니다. 하하하…. 얼마나 재밌는 얘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딨느냐 하면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정신계의 '참나'가, 뿌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언간에 내면에서 뿌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확연히 깨치진 못했어도 거기서 뜻을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떡 먹은 걸로 그냥 돌려서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뜩퍼뜩 생각을 했지. '아, 떡을 반듯한 거 먹었느냐 묻는구나.' 그러고선 "동그란 거 먹었다." 그러고 "셋을 먹었느냐?" 하니까 "다섯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망하게 만들려고 가는 길을 스스로 이 안에서 흥하게 돌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스려서 완벽하게 주장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이 몸속에 뭉쳐 있는 모든 악업 선업 그 자체들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피치 못해요. 그 모든 걸 한마음으로 모아서 주장자가 된 것은 자기 몸뚱이를 그냥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떡을 먹는 걸로 생각을 나게 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농부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조선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야! 안내하는 사람도 이러하니 저 안에서야 어찌 감히 말이나 물어보랴.' 해서 그냥 떨려서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슬슬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곤 갔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그냥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삼강오륜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했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혀끝을 척 차면서 하는 소리가 "야! 그 나라를 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치지 못하겠다." 하더랍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이 마음공부 하시는 양반들! 하하하. 법이 법이라는 이름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항상 평등공(平等空)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하는 평등공!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공(空)! 그래서 평등공에서 나오는 법은, 즉 말하자면 방망이가 오면 철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잘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도 허술히 듣지 말고 허술히 행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옛날에도 얘기했죠. 두 친구가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는 걸 듣고 한 사람은 사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나라마다 전체 왕들을 모아 놔도 저렇게 이익하게 말씀은 못하실 거라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받아서 모르는 나라에서 좀 펴 봤으면….'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옛날에는 수레가 백 대씩 이렇게 장으로 나가는 행렬들이 있었죠. 그런데 술을 먹고 쓰러져 가지곤 수레에 치여서 죽고, 한 사람은 친구가 죽으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물건을 짊어지고선 배에 실어 가지고 어떤 섬나라로 갔더랍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오네요. 하하하.

그때 그 나라의 인군이 돌아가셔서 새 인군을 뽑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말이 뽑아요, 말! 그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옷을 해서 척 걸치고선 나와서 뽑는 거죠. 그런 나라예요. 그 사람이 짐들은 어디다가 맡겨 놓고 조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더니, 양쪽으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찼는데 슬슬 그 말이 오더랍니다. 그 말이 어떻게 영명한지 떡 오더니만 고개를 돌려서 그 보따리 낀 사람을 척 보더니,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다가, 다시 고개가 이쪽으로 들어오더니 사람 틈에 낀 그 사람을 엉덩이로 자꾸 밀어서 그 사람이 물러나게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자꾸 피하니깐 자꾸 쫓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말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정승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이 '아, 여기 인군 될 분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태워도 팽개치고 저 사람을 태워도 또 팽개치더니 그 보따리 낀 사람을 태우니깐 그냥 턱 타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 말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군이 되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 여기도 부처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듣게 해야겠구나.' 해서, 부처님을 모셔다 설법을 듣게 해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빼먹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하하하….

그랬듯이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법사 스님이 물러서지 않는 정진력과 실천력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살림을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상대도 있고, 집안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첫째도 마음이요, 둘째도 마음이요, 셋째도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이 처음에 왈딱 일어날 때에 탁 놔야지 그게 벌어져 가지고 얽히고설킨 이후에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라고 법사 스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남이 언짢아할지 좋아할지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싸움을 붙이지도 않고 가정도 화목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크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닥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애들하고나, 가지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찰나찰나 닥쳐오는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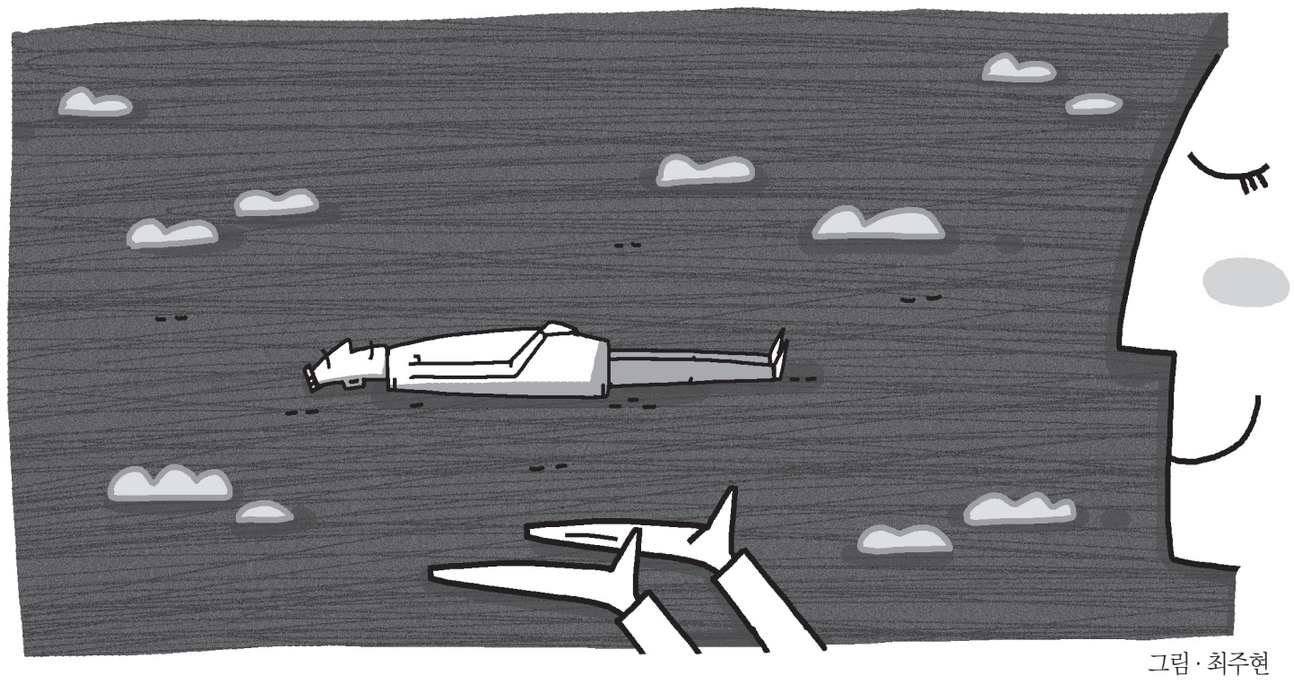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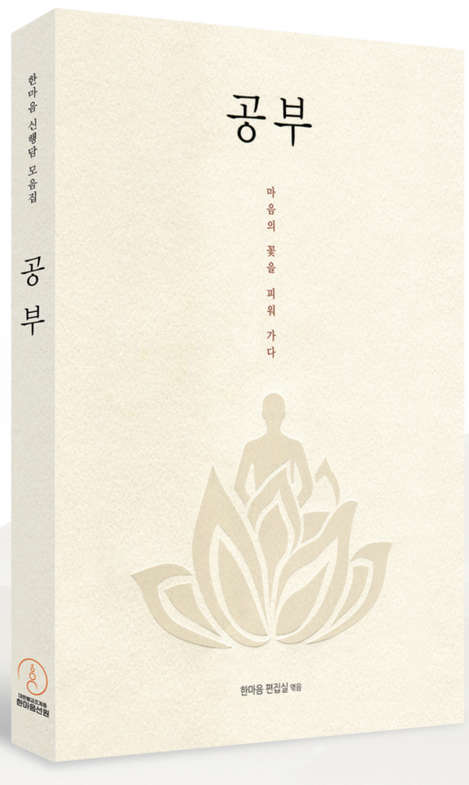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